

청동기시대 대구지역의 취락과 사회

2015. 8. 22. (토) 10:00-17:00

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시청각실

모시는 글

여름의 한가운데 있는 8월, 『청동기시대 대구지역의 취락과 사회』라는 주제로 제28회 조사연구회를 개최합니다.

대구지역은 청동기시대 취락이 전기에서 후기까지 연속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한 지역 내 취락의 통시적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곳입니다. 이번 조사연구회에서 대구지역 청동기시대의 취락과 사회를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바쁘신 와중이라도 참석하시어 진지한 토론의 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.

영남문화재연구원장 박 승 규

발표 내용

개 회	10:20~10:30	인사말 _ 박승규(영남문화재연구원장)
제1부_주제발표	10:30~14:30	사회 _ 박헌민(영남문화재연구원)
제1발표	10:30~11:00	취락과 무덤군의 상관관계로 본 청동기시대 대구 월배지역 취락의 전개과정 류지환(영주시) / 토론 _ 박영구(강릉원주대)
제2발표	11:00~11:30	대구지역 신천일대의 주거와 취락 유병록(우리문화재연구원) / 토론 _ 김병섭(국동문화재연구원)
휴식	11:30~11:40	
제3발표	11:40~12:10	청동기시대 대구 금호강 이북지역의 주거와 취락 이석범(영남문화재연구원) / 토론 _ 이수홍(울산문화재연구원)
중식	12:10~13:30	
제4발표	13:30~14:00	석기를 통해 본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사회 황창한(울산문화재연구원) / 토론 _ 배진성(부산대)
제5발표	14:00~14:30	청동기시대 대구지역의 거석기념물과 무덤 김광명(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) / 토론 _ 윤호필
휴식	14:30~14:50	
제2부_종합토론	14:50~16:50	사회 _ 김권구(계명대) 참석자 _ 주제 발표자, 지정 토론자
폐 회	16:50~17:00	

